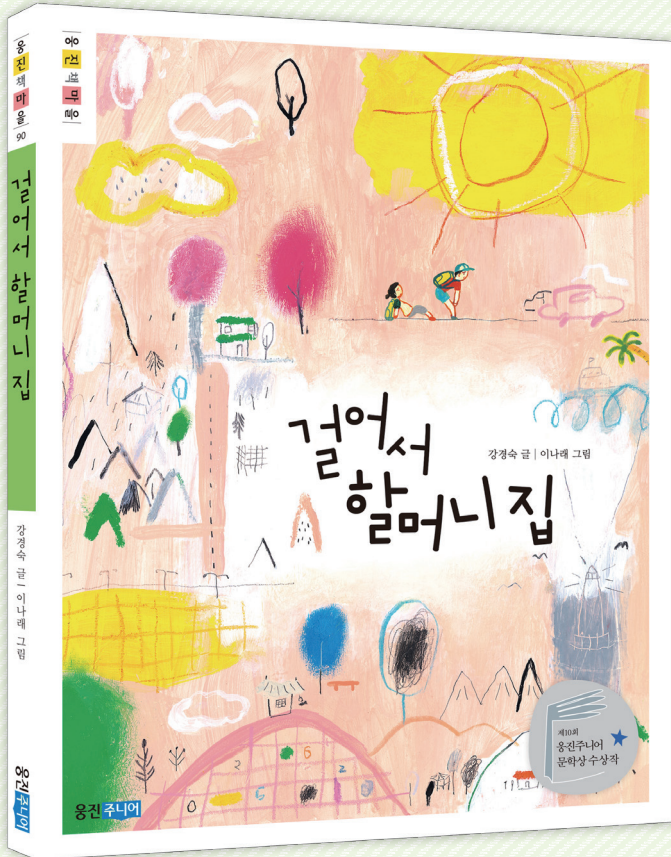


독서수업
지도안
학생용

초등학교 5학년

책을 읽고 생각을 넓혀요



강경숙 글 | 이나래 그림 | 웅진주니어 | 164쪽

독서 준비	읽을 책을 정하고 책 미리 보기
독서	책을 즐기며 읽기
독서 후	생각 나누기, 독후활동지, 정리하기

표지 탐색하기

이름 :

💡 <걸어서 할머니 집>을 읽기 전에 책 제목과 표지를 자세히 살펴봅시다.

1) 책의 제목 '걸어서 할머니 집'을 보면, 어떤 이야기일 것 같은가요?

⇒

2) 앞표지에 있는 그림은 어떤 모습인가요?

⇒

3) 책의 뒤표지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책의 내용과 분위기를 예상해 봅시다.

“오기로 한 건 오게 되어 있어.”

주인공 자매의 땀내 가득한 걸음걸음이 정직한 감동을 주는 작품이다. 먼 바다에서 실종된 아빠를 그리워하며 우울증을 겪는 주인공 여자아이에게 감정 이입이 되고, 초등학교 주인공과 중학생 언니가 걸어서 할머니 집까지 가는 여정이 생생하게 그려져 있어서 조마조마하면서도 재미있게 읽힌다.

① 윗글로 보아 이 책의 등장인물은 누구이고, 어떤 감동을 주는 작품일까요?

⇒

② '감정 이입'의 뜻을 국어사전에서 찾아 써 보세요.

⇒

어휘력 쓱쓱 키우기(1)

이름 :

💡 다음은 <걸어서 할머니 집>에서 발췌한 문장들입니다.

- (가) · 나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앵돌아져 앙양거렸다.
 · 나는 입술을 사리물며 바지를 툭툭 털어 보였다.
 · “네에? 아, 네에.” / 고개를 주억거리는데 다시 욕이 날아왔다.
 · “뛰어!” / 덴겁하여 언니 뒤에 바짝 붙어 뛰었다.
 · 나는 아랫입술을 감쳐물고 말없이 고개만 저었다.
- (나) · 졸음도 ㉠ 로 몰려왔다.
 · 거대한 파도가 배를 덮쳐 올 때나, 태풍을 만난 배가 바닷속을 자맥질하는 이야기는 들을 때마다 ㉡ .
 · 뭐라고 말해 봤자 ㉢ 한다고 하겠지.

1) (가)의 밑줄 친 각 낱말의 뜻으로 알맞은 것을 아래에서 골라 번호를 쓰세요.

- 앵돌아지다 : () · 사리물다 : () · 주억거리다 : ()
 · 덴겁하다 : () · 감쳐물다 : ()

- ① 힘주어 이를 꼭 물다.
 ② 뜻밖의 일로 놀라서 허둥지둥하다.
 ③ 고개를 앞뒤로 천천히 끄덕거리다.
 ④ 노여워서 마음에 들지 아니하고 뒤틀리어서 싹 돌아서다.
 ⑤ 아래위 두 입술을 서로 조금 겹치도록 마주 붙이면서 입을 꼭 다물다.

2) 다음 뜻을 참고하여 (나)의 빈칸 ㉠~㉢에 들어갈 표현을 쓰세요.

- ㉠ : 달리 어찌할 수 없음.
 ㉡ : 저지른 잘못이 들통이 나가거나 그 때문에 나쁜 결과가 있지 않을까 마음을 졸였다.
 ㉢ : 이치에 닿지 않는 엉뚱하고 쓸데없는 말.

어휘력 속속 키우기(2)

이름 :

💡 다음은 <걸어서 할머니 집>에서 발췌한 문장들입니다.

- (가) ① 휘청, 다리가 꺾이느라 싶더니 뜨거운 땅바닥에 ()로 넘어져 버렸다.
 ② 분수가 있는 마당에 작은 ()가 여러 개 보였다.
 ③ 언니는 () 주머니에 물병을 싸는 내 머리를 마구 헹글었다.
 ④ 언니는 ()을 몰아쉬며 나를 몰아쳤다.
 ⑤ 하늘은 잔뜩 내려앉았고 시꺼먼 ()이 들판을 덮어오고 있었다.
 ⑥ 언니 명령에 ()도 못 내고 일어났다.
 ⑦ “마음 속 쓸데없는 생각은 다 ()란다.”

(나) 길가 작은 밭에 붙은 팻말이 재미있다.

‘농작물에 ㉠손 데지 마시오. ㉡손 데면 좋지 않은 일 생김.’

저렇게 부드러운 으름장은 처음 본다. 틀린 맞춤법도 귀여웠다.

1) 위 문맥과 아래 낱말 뜻을 고려할 때, (가)의 각 빈칸에 들어가기에 알맞은 낱말을 아래에서 골라 쓰세요.

- 매지구름 : 비를 머금은 검은 조각구름.
- 녀장거리 : 네 활개를 벌리고 뒤로 벌렁 나자빠짐.
- 황소숨 : 황소가 가쁜 숨을 몰아쉬듯이 크게 쉬는 숨.
- 보랭 : 주위의 온도에 관계없이 시원한 온도를 유지함.
- 쯤부럭 : 몸이나 마음이 괴로울 때 걸핏하면 짜증을 내는 것.
- 허깨비 : 기(氣)가 허해 착각이 일어나, 없는데 있는 것처럼 보이는 물체.
- 방갈로 : 산기슭이나 호숫가 같은 곳에 지어 여름철에 훈련용, 피서용으로 쓰는 산막(山幕), 별장 따위의 작은 집.

2) (나)의 밑줄 친 ㉠, ㉡을 맞춤법에 맞게 고쳐 쓰세요.

⇒ ㉠ :

㉡ :

낙동강 / 공원 정자

이름 :

💡 다음 <걸어서 할머니 집>에서 발췌한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흐응, 아빠. 안 가면 안 돼?”

“이오야. 이번에 아빠 갔다가 돌아오면 꼭 가 보자. 할머니 집까지.”

나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앵달아져 앙앙거렸다.

“엄마 말씀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자, 약속.”

손가락을 마주 걸고 흔드는데 ㉠뱃고동이 길게 울었다.

(나) “몇 학년이고?” / “저는 중학교 2학년이고 동생은 초등 6학년인데 할머니 집 가요. 걸어서.”

/ “할머니 집이 오텐데?” / “합천요.” / “에앵!”

세 사람이 깜짝 놀란다. 할머니가 물었다.

“이러키 더운 날에 와?” / “그러니까, 그게 저희들 숙제예요.”

“시상에, 누가 그런 숙제를 냈노?” / “아빠가……. 아니, 우리가 낸 거예요.”

(다) 널찍한 정자 마루에는 할머니들이 한가득이었다.

심심하던 차에 우리가 와서 반갑다는 듯 할머니들은 서로 자리를 내주었다.

㉡‘남매가 뭐 팔러 다니누?’ 실실 웃음이 나왔다. 언니를 의심 없이 남자로 본 거다.

“팔러 다니는 건 아니예요.” / “답은데 어데 간다꼬?” / “할머니 집예요. 걸어서.”

1) (가)~(나)에서 ‘나’(이오)와 ‘언니’가 할머니 집에 가는 이유를 찾아 정리해 보세요.

(가) : 아빠는 ‘나’(이오)에게 _____ _____ _____	(나) : 합천에 있는 할머니 집에 가는 것은 _____ _____
---------------------------------------------	---------------------------------------------

2) (가)의 밑줄 친 ㉠에서 ‘아빠’에 대해 추측할 수 있는 내용을 써 보세요.

⇨

3) (다)의 밑줄 친 ㉡에서 ‘할머니들’이 오해한 내용을 파악하여 써 보세요.

⇨

경찰 지구대 / 이상한 산장

이름 :

💡 다음 <걸어서 할머니 집>에서 발췌한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날씨가 이만하기만 해도 정말 좋겠다, 그치?”

“응. 그런데 언니, 오늘 어디서 잘 거야?”

“조금 더 가서 정하자. 짐질방이 있으면 좋은데. 그리고 ㉠언니라고 부르지 말래도.” / “흐응, 오빠, 다리 아파.”

내 말에 언니가 헤헤헤 웃었다. 나도 따라 웃었다.

김해 시가지지를 벗어나 작은 고개 하나를 넘었다.

해가 서산으로 막 넘어가려 할 때 김해 경찰서 주촌 치안센터 앞에 도착했다.



(나) 그런데…… 돌아오기로 한 날 아빠는 오지 않았다.

모항인 라스팔마스로 돌아오던 아빠 배는 소수 민족의 총격을 받았다고 한다.

배에 화재가 났고 선원들은 바다에 뛰어들었다.

아빠의 행방을 알 수 없다는 소식에 엄마는 모로코로 떠났다.

나는 점점 말을 잃었다. 웃음과 잠까지 함께 잃어버렸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날마다 북아프리카와 대서양 지도만 들여다봤다.

1) (가)에서 ‘언니’가 ‘나’(이오)에게 ㉠과 같이 말한 이유를 추측하여 써 보세요.

⇨

2) 윗글 (나)는 ‘아빠’의 실종 소식에 ‘엄마’도 모로코로 떠나서 ‘나’(이오)와 ‘언니’만 남은 상황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나’와 같은 상황에 처한다면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질 것인지 (나)에 나타난 ‘이오’의 모습과 비교하여 써 보세요.

⇨

뱀, 선글라스 아저씨 / 오아시스

이름 :

💡 다음 <걸어서 할머니 집>에서 발췌한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으씨, 흙은 왜 부어 놓은 거야?” 언니가 2차선 갓길에 수북이 깔아 놓은 흙을 보고 투덜거렸다. 자세히 보니 흙에 빨간 새싹들이 뽀족뽀족하다.

“무슨 꽃씨 같은데…….” / “뭐? 꽃씨! 말도 안 돼.”

흥분하는 언니 말이 맞다. 길옆은 온통 논인데 농부들은 어디로 다니라고.

“사람이 만든 길이 사람을 너무 무시해. 순전히 자동차만 위하고 말이야.”

트럭을 피해 길옆으로 비키면서도 언니는 불통거렸다.

(나) 한순간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몸을 앞으로 쑥 내밀었다.

흐읍, 숨을 들이마시니 허공으로 걸어갈 수 있을 것만 같았다.

“이오야! 위험해.”

언니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왔다. 언니는 나를 끌어안고 울음을 터뜨렸다. 내 가슴속에서도 뜨거운 것이 몽텅몽텅 올라오더니 울음이 터져 나왔다. / “어, 어어엉……. 아빠!”

언니는 내 등을 계속 쓸었다. 울음이 잦아들자 언니가 말했다.

“아빠랑 가기로 한 길, 우리 둘이 가 보자. 이 언니만 믿어.”



1) (가)에 나타난 ‘길’에 대하여 정리해 봅시다.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쓰세요.

갓길의 흙에 빨간 새싹들이 뽀족뽀족하게 나 있고, _____

+

_____ 순전히 자동차만 위해서 사람은 트럭을 피해 길옆으로 비켜야 함.

2) (나)의 글과 그림에서 느껴지는 ‘나’(이오)의 감정 상태를 파악하여 써 보세요.

⇒

3) (나)에서 ‘나’(이오)를 보는 ‘언니’의 마음은 어땠는지 짐작하여 써 보세요.

⇒

방울토마토, 오이 / 빨간 자동차 게임

이름 :

💡 다음 <걸어서 할머니 집>에서 발췌한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헉헉, 너 때문에 내가 못 산다.” 언니는 황소숨을 몰아쉬며 나를 몰아쳤다. “어떻게 남의 농작물 훔칠 생각을 했어?” / “훔친 거 아냐. 빌린 거지.” / “뭐? 빌려? 네가 허클베리 핀이냐?” 언니는 기가 차 다는 듯 헛웃음을 쳤다. 땀뭍 타고 흘러가면서 남의 밭 참외나 옥수수로 배를 채우는 허클베리 핀.

어느 때는 잠자는 닭도 안고 가는데, 매번 훔친 게 아니라 빌린 거라고 우겼다. “빌린 건 꼭 갚기다. 안 그러면 경찰에 확! 알았지?”

(나) 나는 말없이 한숨을 포옥 쉬었다. 언니가 내 손을 잡았다.

“너 때문에 시작했지만, 이건 굉장한 일이야. 끝나면 뭔가 멋진 선물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지금은 아무 생각 말고 걷기만 하자. 응?”

하긴 언니 말이 맞다. 이상하게 걷는 동안은 마음이 편안했다. 너무 덥고 목마르고 힘들어서 그동안 나를 괴롭힌 나쁜 생각은 하나도 안 났다.

“헤이, 동생. 우리 멋지게 해내자.” / “좋아.”



1) (가)에서 ‘나’(이오)는 남의 농작물을 훔치고는 빌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나’의 말에 반박하는 내용을 ‘빌리다’는 말의 사전적인 뜻을 참고하여 써 보세요.

· 빌리다 : 남의 물건이나 돈 따위를 나중에 도로 돌려주거나 대가를 갚기로 하고 얼마 동안 쓰다.

⇒

2) (나)에서 ‘나’(이오)가 할머니 집에 걸어가면서 생긴 마음의 변화를 찾아 쓰세요.

⇒

눈빛 필살기 / 호호 할머니

이름 :

💡 다음 <걸어서 할머니 집>에서 발췌한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길은 넓히는 공사로 어수선했고 대형 트럭이 유난히 많았다. 커다란 트럭은 멀리서 달려 오는 모습도 무섭고 옆을 지날 때는 더 무섭다.

“뽕!” 옆구리를 스치는 트럭이 ㉠일부러 경적을 울리고 달아났다.

“우씨, ㉡에어컨이나 고장 나 버려라!” 달아나는 트럭을 보고 언니가 주먹질을 했다.

“㉢멀리서부터 눈 딱 맞추면 바퀴 살짝 들이고 속도 늦추는 기사도 있어.”

“정말?” / “응. 몇 번이나 경험했어.”

“대단하다. 짧은 순간 마음 전해 ㉣트럭 기사를 움직이다니.”

“뭘, 별거 아니야.” / “아냐, 넌 굉장해.”

(나) “에, 잘한다!” 반죽 좋은 언니의 뜬금없는 민요 타령을 할머니들이 어찌나 좋아하는지.

“이오야, 너도 일어나.” / “아유, 됐어!”

언니는 한사코 날 일으켜 세웠다. 팬들의 환호에 밀양 아리랑도 부르고 동요, 가요까지 자매 공연단이 제대로 공연을 해 버렸다. 수돗가 봉숭아들이 일제히 쳐다보고 이웃집 해바라기도 까치발로 구경을 했다. 언니가 그토록 끼 넘치는 데에 놀랐다. 뭘, 나 자신에게도 좀 놀랐다.

“아따, 애기들이 재주도 좋네. 덕분에 얼마나 재미 졌는지 몰러.”

1) (가)에서 밑줄 친 ㉠~㉣에 대하여 바르게 이해하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 ① ㉠은 트럭 기사가 길가를 걸어가서 사람에게 겁을 주는 행동이다.
- ② ㉡은 ‘언니’가 트럭 기사에 대한 괘씸한 마음에서 한 말이다.
- ③ ㉢은 트럭이 멀리서 달려올 때부터 트럭 바퀴를 뚫어지게 본다는 것이다.
- ④ ㉣은 트럭 기사가 속도를 늦추고 조심해서 지나게 만든다는 뜻이다.

2) (나)에서 ‘할머니들’에게 공연하는 모습에 나타난 ‘언니’의 성격을 파악하여 써 보세요.

⇨

시골 스토커, 수박 / 스님, 아빠 목소리

이름 :

💡 다음 <걸어서 할머니 집>에서 발췌한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갈색 털이 피에 젖은 채 모로 누운 고라니…….

“치인 지 얼마 안 됐나 보다.”

언니가 길게 한숨을 쉬며 말했다. 차바퀴에 깔려 납작해진 생물을 몇 번이나 봤지만 이렇게 큰 동물은 처음이었다. 감지도 못한 까만 눈을 보니 울음이 터져 나왔다.

“으엥엥. 집에 있지 찾길에는 왜 왔니, 고라니야…….”

고라니가 꼭 길에 나와 있는 우리 처지만 같아 큰 소리로 울었다.

“도대체 야생 동물 보호해 줄 줄을 몰라. 썩썩 달리기만 하고 말이야.”

(나) “그리고 이오야.” / “네?” 스님이 내 이름을 불러서 깜짝 놀랐다.

“새벽에 유이한테 아빠 얘기랑 다 들었어. 장하다.”

스님은 엄지손가락을 들어 올렸다. 나는 땅바닥만 내려 본 채 잠자코 있었다.

㉠“마음속 쓸데없는 생각은 다 허깨비란다.”

스님은 훈훈한 미소를 지으며 내 얼굴을 보았다.

㉡“허깨비하고 씨름하지 마라. 알았지?” / “……네에.”

허깨비. 나는 그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았다.

“이제 그만 가 봐라. 어유, 멋진 녀석들.”

1) (가)에서 벌어진 일에 대하여 ‘나’(이오)와 ‘언니’의 반응을 정리해 보세요.

벌어진 일 :

‘나’와 ‘언니’의 반응 :



2) (나)에서 ‘스님’이 말한 ㉠과 ㉡은 무슨 뜻인지 파악하여 써 보세요.

⇨ ㉠ :

㉡ :





정답과 해설

3쪽	<p>1) (예시답안) 주인공이 차를 타지 않고 걸어서 할머니 집까지 가는 이야기일 것 같다.</p> <p>2) (예시답안) 위쪽에는 노란 태양 아래에 두 아이가 쉬고 있고, 왼쪽에는 위에서 내려다본 산과 논, 집과 도로가 있다. 아래쪽에는 산에 집이 있고, 바다에 불빛을 밝혀주는 등대가 있다.</p> <p>3) ① 초등학교 주인공과 중학생 언니 / 주인공 자매의 땀내 가득한 걸음걸음에서 정직한 감동을 주는 작품.</p> <p>4) 자연의 풍경이나 예술 작품 따위에 자신의 감정이나 정신을 불어넣거나, 대상으로부터 느낌을 직접 받아들여 대상과 자기가 서로 통한다고 느끼는 일.</p>
4쪽	<p>1) 앵돌아지다 : ④, 사리물다 : ①, 주역거리다 : ③, 덴겁하다 : ②, 감쳐물다 : ⑤</p> <p>2) ㉠ : 막무가내, ㉡ : 오금이 저렸다, ㉢ : 귀신 씻나락 까먹는 소리</p>
5쪽	<p>1) ① 넉장거리, ② 방갈로, ③ 보랭, ④ 황소숨, ⑤ 매지구름, ⑥ 찜부럭, ⑦ 허깨비</p> <p>2) ㉠ : 손대지, ㉡ : 손대면</p>
6쪽	<p>1) (가) : 이번에 갔다가 돌아오면 할머니 집까지 꼭 가 보기로 약속했음. (나) : '나'와 '언니'가 스스로 낸 자신들의 숙제라고 생각하고 있음.</p> <p>2) '나'의 아빠는 배와 관련된 일을 하거나 배를 타고 떠났을 것이다.</p> <p>3) '나'의 언니를 남자라고 오해했고, 남매가 물건을 팔러 다니고 있다고 오해했다.</p>
7쪽	<p>1) (예시답안) 여자인 언니와 여동생이 여행을 다니는 것이 알려지면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p> <p>2) (예시답안) 만약 '나(이오)'와 같은 상황에 처한다면, 언니가 있다고 하더라도 막막하고 불안할 것 같다. 하지만 '나'처럼 지도만 들여다보며 점점 말과 웃음과 잠까지 잃어버리지는 않을 것이다. 내가 할 일을 잘 하며 씩씩하게 지내고 있어야 부모님이 무사히 돌아오실 것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p>
8쪽	<p>1) 길옆은 온통 논인데 농부들이 다닐 길이 없음. / 사람이 만든 길이 사람을 너무 무시하고</p> <p>2) (예시답안) 멍하고 허무하면서도 울컥하는 불안정한 상태인 것 같다.</p> <p>3) 안타깝고 가슴 아프면서 걱정스럽고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을 것이다.</p>
9쪽	<p>1) (예시답안) '나'는 말로만 빌린 것이라고 할 뿐, 실제로 농작물을 다시 돌려주거나 대가를 갚으려는 생각이 없으므로 빌렸다는 말은 잘못된 것이다.</p> <p>2) 걷는 동안은 마음이 편안했고, 그동안 '나'를 괴롭힌 나쁜 생각은 하나도 안 났다.</p>
10쪽	<p>1) ③</p> <p>2) 언니는 부끄러움을 타지 않아서 반죽이 좋으며 끼가 넘치는 성격이다.</p>
11쪽	<p>1) 벌어진 일 : 길 가운데에 차바퀴에 깔려서 갈색 털이 피에 젖은 채 모로 누운 고라니를 처음으로 봄. '나'와 '언니'의 반응 : '나'와 '언니'는 고라니가 꼭 길에 나와 있는 자신들의 처지 같이 느껴져 큰 소리로 울었음.</p> <p>2) ㉠ : 마음속의 쓸데없는 생각은 헛것이다. ㉡ : 마음속의 쓸데없는 생각 때문에 속을 꿩이지 마라.</p>

응진주니어

값 9,500원



ISBN 978-89-01-22278-3
ISBN 978-89-01-03863-6(세트)



KC 마크는 이 제품이
공통안전기준에 적합
하였음을 의미합니다.



주의
책 모서리에 다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